

고려시대 인물관련 제작물을 통해서 본 복식에 관한 연구(2)

—고려시대 인물관련 제작 불화(佛畫) 중 ‘탱화’를 통해서 본 복식에 관한 연구(2)–①
–남녀 왕실 귀족 및 관직자 복식을 주로하여–

동덕여자대학교 가정학과
임명미

目 次

I. 서 론	III. 결 론
1. 연구의 목적	IV. 요 약
2. 연구 내용 및 범위	참고문헌
3. 연구방법	ABSTRACT
II. 본 론	
1. 고찰대상 작품을 통해서 본 복식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고려왕조 500년의 복식에 관한 것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고려시대 인물관련 제작물을 통해서 복식관련 자료가 미비한 고려왕조대 복식을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

2) 연구범위와 내용

본 연구는 고려왕조 500년의 복식 전반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의 부분연구로, 고려대 인물관련 제작물을 통해서 본 복식에 관한 고찰은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자 하며 본 연구는 그중 2번째 연구(2)–①에 해당하는『고려시대 인물관련 제작물을 통해서 본 복식에 관한 연구(2)–①』–고려시대 인물관련 제작 불화중 탱화를 중심으로–에 관

한 연구이다.

(1) 고려시대 인물관련 제작 청동경을 중심으로 (1)

(2) 고려시대 인물관련 제작 불화를 중심으로 (2)

 ① 고려시대 인물관련 제작 불화중 탱화를 중심으로 (2)–①

 ② 고려시대 인물관련 제작 불화중 사경화를 중심으로 (2)–②

 ③ 고려시대 인물관련 제작 불화중 판화를 중심으로 (2)–③

(3) 고려시대 인물관련 제작 도자기를 중심으로 (3)

(4) 고려시대 각인 및 제작 금동 및 청동 인물상을 중심으로 (4)

(5) 고려시대 석각 및 석조 인물상을 중심으

로 (5)

(6) 고려시대 인물화 및 출토고분 벽화 인물상을 중심으로 (6)

연구는 1. 서론에서 연구목적, 연구범위와 내용, 연구방법을 밝히고 2. 본론에서 고찰대상 팽화속에 등장인물을 주로 왕실귀족 남·녀, 관직자와 평서민, 스님, 응·무장 등으로 나누어 머리서부터 착용 장신구, 복식, 죽의까지 모두 고찰한다.

3) 연구방법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고려시대 제작(9점의 나한도, 1점의 아미타 구존도, 5점의 수월 관음도, 4점의 관경변상도, 1점의 관음보살 입상도, 7점의 지장보살도, 1점의 마리지천왕도, 2점의 벽화, 총 30여점) 팽화를 중심으로, 복식전문 연구학자가 아닌 단지 고려불화 연구 전문가 일지라도 불화속의 마리지천왕 등의 착용복식을 당시 고려 왕국의 황녀의 복제를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¹⁾ 또, 불화속에 등장하는 속인들은 당시의 복식과 머리 꾸밈새를 한 고려인으로 보고있는 것²⁾과 같이 이들 팽화속에 등장인물들의 착용복식은 당시 고려인의 복식인 것으로 이들 제보살, 동자(선재, 주선, 주악), 제왕(諸王), 사천왕, 신장(神將), 귀졸(鬼卒), 판관, 사자(使者), 성중(聖衆), 속인 등

을 중심으로 이들의 착용복식을 고찰하되, 남녀의 왕실귀족 및 관직자 복식은 고려를 전후한 인근 제국의 문헌기록과 전세 회화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고찰한다.

II. 본 론

불화는 불교관련 그림으로 일면 ‘변상’³⁾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의궤, 도상과 같은 격식에 따른 그림으로 한정하여 대개, 1) 벽화, 2) 팽화, 3) 사경화, 4) 판화로 나누고 있다.⁴⁾

1) 벽화 :

벽화는 사원이나 동굴, 판야 등의 벽에 불교 추종의 변상을 그린 것이다. 현존 고려 불교 벽화는 경북 소재 부석사⁵⁾ 조사당에 있는 범천, 제석천, 지국, 중장, 광목, 다문천왕 등⁶⁾ 벽화 6점이다. 이 외에 수덕사 대웅전에서 불보살, 비천화 등 고려 때 벽화⁷⁾가 있었으나 원화는 6·25를 전후하여 모두 없어지고 수덕사와 국립 중앙 박물관에 모사가 전해오고 있는 비천상의 벽화가 1점씩이 있다.

2) 팽화 :

팽화(죽자나 액자)는 불존이나, 당의 중앙이나

1) 일본의 고려불화 전문가 ‘국’은 마리지천왕(馬利支天王)은 고려 왕실종의 황녀(皇女)의 복식제도(服飾制度)를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고찰하고 있다. (국죽순일, 고려불화, 조일신문사, 도판해설, p.57.)

2) 안휘준, 고려불화의 회화사적 의의, 고려, 영원한 미, 1993. p.185.

3) ‘변상(變相)’이란 ‘변화되어 나타난 모습’이란 뜻으로 불교에서 ‘변상’은 부처님의 본생이나 불전, 또는 정토의 장엄을 조각이나 회화로 나타낸 것이다. 즉 불교를 주제로 하여 나타난 예술적 현상을 통털어 말하는 것이다. (장충식, 고려 화엄경 판화의 세계, 1992. 아세아문화사, p.4.)

즉, 중국총 사원의 벽화 변상이나 돈황천불상등, 안서 유림굴 등에서 발견되는 ‘불전고사’나 ‘본생경변’ 등 유과제경변, 본행경변, 지육변, 항마변, 사방변, 금강경변, 금광명경변, 정토변, 미륵하생변, 화엄경변, 법화태자변, 사방불화변, 16관변, 염라왕변, 미륵변, 일장월장경변, 염보차별변, 10윤변, 8국왕 문사리변, 악사변 등등과 우리나라에서도 고대로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비로사나불변, 관음보살변, 지장보살변, 미륵보살변 등 정토를 나타내는 변상과 함께, 화염, 법화, 지옥, 10왕 등 여러종류의 변상이 만들어졌다.

즉, 불교의 교의를 바탕으로 종생 교화를 목적으로 다양하게 제작한 것으로, 오늘날은 ‘변상’이란 주로 ‘경전변상’을 말한다.

4) 이동주, 고려불화-팽화를 중심으로, 고려불화, 중앙일보사, 1981. p.193.

5) 경북 영풍군 부석면 북지리 소재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16년(676) 의상국사가 왕명을 받고 창건한 명찰이다. 무량수전 뒷편 조사당은 1376년,(우왕 2년) 원자국사에 의해 재건되었다.

6) 의상조사의 진영을 모셨던 조사당의 의상조사를 지켜주는 호법선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벽화는 선광 7년(우왕 3년) 국사 원옹과 공양왕과 순비인 노씨사이에서 태어난 제2녀인 정신옹주의 발원으로 제작된 것이다.

7) 수덕사 대웅전 수리때 조선초기의 벽화 한점 아래서 고려때의 불, 보살, 비천, 꽃 등의 벽화들이 발견되었다.

벽면에 걸어두고 예배하였던 것으로, 고려에서는 왕실이나 권문세족들의 기원용으로 많이 만들어졌다.

크기는 길이 4m, 넓이 25m 크기도 있었으나 대개는 2m×1m, 혹은 1m×1m 미만의 크기였다. 불교관련 팽화외에도 영당 등이나 송실, 거실에는 벽화가 아닌 조사, 나옹초상 등을 걸어두고 관상하거나 예배하였다.⁸⁾

현존 고려불화중 팽화는 근 80여점⁹⁾이 있다. 그러나 기년이 명백한 불화로 고려후기의 고종년간 이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없는데 그 이전의 것들은 원의 침공으로 모두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기년이 분명한 팽화는 12점 23폭인데, (이 가운데 나한도 9폭은 절대 연수를 확정하기 힘들어 고종 22-23(1235-1236)년간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한은 9폭을 제외한 14폭¹⁰⁾은 모두 충렬왕 12년(1286) 이후 충정왕 2년(1350) 사이의 64년간 사이의 작품으로, 원과 교류당시에 이뤄진 작품이다.

1) 고찰대상 작품을 통해서 본 복식

현존하는 고려 불화는 80여점으로 그 중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총 30여점의 팽화를 중심으로, 팽화속에 등장하는 제보살, 제왕, 신장, 귀족, 판관, 사자, 성중, 스님, 동자(선재, 주악, 주선) 및 등장 제왕실 귀족 남녀, 백관, 제평서민, 남녀노소 등의

착용복식이 팽화제작 당시의 고려 왕실 귀족 남녀의 복식을 보여주는 시대 특성적 복식의 반영일 것이다. ‘고려불화 중에는 속인들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복식은 당시의 복식과 머리 꾸밈새 등과 더불어 고려인들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으며’¹¹⁾라 하여, 이들의 복식을 중심으로, 이들 불화가 제작되었던 당시의 고려복식 전반을 고찰하고자 시도한 연구이다.

80여점의 고려 팽화 중, 기년이 분명한 팽화는 12점 23폭인데, 오백 나한도(나한도 9폭은 절대 연수를 고종 22-23(1235-1236)년간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9폭을 제외한 고찰대상 작품이 대개 충렬왕 12년(1286) 이후 충정왕 2년(1350) 사이, 64년간 사이의 작품으로, (현재 기년이 명백한 불화로서 고종 년간 이전의 것은 거의 원의 침공으로 소실되고 없기 때문에) 본 연구 고찰대상 인물의 착용복식은 주로 원과 교류당시 고려 복식이라고 볼 수가 있다.

① 고려 팽화의 주제가 왕실 귀족관련 불화를 주제로 하였거나,

② 왕실귀족이 주제가 아니더라도, 제경전 변상화에 등장하는 제불, 보살, 제왕, 판관, 왕비, 시녀, 신장 등의 인물묘사와 그에 따른 착용복식 등이 당시 고려의 국왕이하 제백관의 제도 복식에 기초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입각하여 본다면, 본

8) 문명대, 『고려불화의 조성배경과 내용』, 고려불화, 중앙일보사, 1981. p.216.

9) 관경서품변상 2폭, 관경변상 2폭, 미륵하생경변상 2폭, 아미타 팔대보살 약 8폭, 아미타 독존 약 6폭, 아미타 삼존 약 10여폭, 관음보살독존 약 20폭, 지장보살독존 약 6폭, 지장심왕 약 5폭, 마리지천 1폭, 기타 10폭으로 거의 아미타불과 관음, 지장관계 불화이다. (이동주, 1981, 일책, p.197.)

10) ①아미타불입상, 지원 23년, 충렬왕 12(1286), 일본운행소장

② 아미타불좌상, 대덕 10년, 충렬왕 32(1306), 일본근율미술관 소장

③ 소칠병풍안밖, 대덕 10년, 충렬왕 33(130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④ 아미타 3존도 3폭, 지대 2년, 충선왕 원년(1309), 일본상삼신사 소장

⑤ 수월관음, 지대 3년, 충선왕 3년(1310), 일본경신사 소장

⑥ 관경서품변상, 황경 원년, 충선왕 4년(1312), 일본대덕사 소장

⑦ 아미타 8대 보살, 연우 7년, 충숙왕 7년(1320), 일본총미사 소장

⑧ 관경변상, 지치 3년, 충숙왕 10년(1323), 일본지은원 소장

⑨ 수월관음, 지치 3년, 충숙왕 10년(1323), 일본가우가 소장

⑩ 아미타삼존, 천역 3년, 충숙왕 17년(1330), 일본법온사 소장

⑪ 미륵하생경변상, 지정 10년, 충정왕 2년(1350), 일본친왕원 소장(上同)

11) 안휘준, 고려불화의 회화사적 의의, 고려, 영원한 미, p.185. 1993.

연구의 고찰대상 불화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착용복식은 고려복식 속에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었던 고구려, 당, 신라적인 요소와 고려가 건국 초부터 존속 500여년간, 교류관계에 있었던, 오대중국, 발해, 북송, 금, 남송, 원, 명으로 이어진 제국과의 상호영향속에 성립을 본, 특히 남방 특성적 중국의 영향하에 성립된 당시 동남, 동북, 동아시아 제국간의 공통복의 성격을 띤 고려복식일 것이라는 추정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본 고찰대상 속에 포함된 “고려의 〈관경변상도〉만을 예로들어 보더라도, 이 〈관경변상도〉가 북송의 대지율사(1048-1116: 고려문종 2년-예종 11년)의 〈관무량수불경소〉의 도상에 기초를 두고 그려진 것”이라 하나, 한·중·일 삼국의 불교 문화권에서 서로 문화교류를 하면서 제작되어진 것들이어서 도상이나 구도면에서 공통적인 기반을 지니게 되어졌으나, 문화적 풍토가 다름에 따라서 각기 다른 불화의 양식과 형식을 놓게 되므로 구분이 있게 된 것은 필연적¹²⁾이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볼때, 본 연구의 고찰대상인 고려 탱화 속의 인물들의 착용복식들이,

가) 얼마나 ‘고려적’인 특성을 지녔는가
나) 얼마나 ‘오대 중국 특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다) 얼마나 ‘북송적’인 것과의 관련이 있는 것인가

라) 얼마나 ‘요, 금대 중국 특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마) 얼마나 ‘남송 특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바) 얼마나 ‘원대 중국 특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당대, 오대, 북송, 요, 금, 남송, 원, 명대의 돈황 불벽화나 기타 현존하

는 인근 제국의 관련 불화와의 비교 연구 속에서 미술사학 혹은 복식사학적 관점에서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전제하에 현존하는 고려 탱화 중 30여점을 고찰대상으로 하여 살펴본 고려복식의 제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남자복식

1) 발양(髮樣) 및 관모

① 남자는 대개 상투를 하고 관, 전, 모를 착용하였다. 동자동은 1각, 2각, 3각의 총각머리를 하고 발대(髮帶)로 묶어 치장하였다.

② 관모로는

- (가) 제복·용 면류관
- (나) 조복·용 통천(원류)관(일명 권운관), 진현(양)관, 농관, 해치관
- (다) 공(상)복·용 복두(전각, 상향각, 말액, 하각, 화각), 연화관
- (라) 평상복·용 두건, 입모, 전모
- (마) 음, 무복·용 투구류 등이 있었다.

2) 복식

① 제복 : 요사에 보면,¹³⁾ 황제는 현의 훈상, 송사에 보면,¹⁴⁾ 면복제는 여러번 바뀌는데, 휘종대관 4년제(1110)는, 청색외에 훈색상을 착용하고, 금제는¹⁵⁾는 황제가 청의 홍상제였고, 황태자가 청의 주상제였다. 원사¹⁶⁾에 보면, 원대 황제의 면복색제는 영종대 정제가 청의 비상, 지원 12년 정제가 청의 홍상제였고, 대덕 11년 정제가 현의 훈상, 송제에 준한 정제가 청의 홍군제였다. 고려사¹⁷⁾는 문종 9년 이후부터 국왕은 면류관제를 착용하는데

12) 홍윤식, 고려불화의 특징의 이해를 위하여, 고려, 영원한 미, 1993, p.173.

13) 요사, 권56, 지제 25, 의위지, 2. 국복, 한복.

14) 송사, 권156, 지제 106, 여복 5.

15) 금사, 권43, 지제 24, 여복 5.

16) 원사, 권77, 지제 27, 하, 제사 6.

17) 임명미, 고려왕조대 고려와 교류하였던 제국과 고려의 복식제도에 관한 연구(2·4), 복식 20, 한국복식학회지, 1993, 5, p.40.

청의 훈상제였고, 고려 불화인 지장 10왕도 중 면류관 착용왕은 관모부분과 상의 부분만 보이는데, 의색은 룽청색¹⁸⁾과 흑색¹⁹⁾으로 방심곡령을 하고, 홀을 들고 있다. 이로보면, 요, 송, 고려, 금, 원의 면류관 착용복색, 청색, 현색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현색, 룽청색으로 대동소이하다. 혹시 채색의 퇴색인지도 알 수 없다.

② 조복 : (가) 요사²⁰⁾에 보면, 황제 조복은 통천관, 강사포의 착용 일습이고, 황태자는 3량 원유관에 강사포제이다. 송사²¹⁾에 보면, 조복의 구성은 황제, 황태자가 통천(원유)관, 백관이 진현관, 해치관, 농관 등의 관모에 의복은 강사포(흑색 영, 수, 거)에 강사색의 군, 내외로 백색중단, 방심곡령, 금옥대, 흥색 폐술, 대대, 혁대, 옥검, 옥폐, 후수, 백말, 흑리이다. 금사²²⁾에는 황제가 조회에 저황포, 상조(常朝)에 홍란, 편대, 태자가 자포, 옥대, 쌍어대, 직무, 사소빈객 접견시 소모, 조삼에 옥대를 한다. 금대벽화²³⁾에서는 금색양관, 연갈색 대수 상의, 초록색 단주름 장식된 백색하군, 청색 폐술 착용(암산사 금대벽화, 도.6)하고 있다. 원제²⁴⁾의 경우 7량관이 청의 홍상, 대홍폐술, 5량관이 갈색대수의 대홍상, 흥색폐술, 3량관이 청의 홍상, 흥색폐술제이다. 고려사 여복지²⁵⁾에 있는, 의종조(1146-1170)에 상정한 고려의 국왕이하 백관의 관복제는 조선왕조 세종대(1419-1449)에 제 전례를 참조하여 정인지가 편찬한 것으로 비록 당시 제정제와 동일 제도가 아닐지라도 대동소이 하였으리라 보지만,

① 엄격히 말하면 제정 당시로부터 300여년의 세월이 흐른뒤의 일이며,

② 조선초의 복제는 송의 간편제를 쫓은 명초의 간편제(조복으로 제복을 대신하는 제복과 조복을 통제로 하였던, 면류관제의 제복제가 아니고 양관제임)의 복식을 채택하여 제정 복제화한 상황에서, 의종조 상정 관복제 속에는 고려의 조복제가 상세히 명기되지 않았는데, 초기에는 국왕은 복두에 자황포, 백관은 복두에 복색구별이 있는 공복으로 대신하였다.

③ 국왕의 조복제인, 통천(원유)관-일명 권운관-류관모 착용예는 본 고찰대상 고려 탕화 속에 서는 다음과 같다.

④ 기사굴산을 떠나온 석가 여래 옆의 성중들중 왕²⁶⁾ (원유관, 조색단식 교령대수 홍포, 방심곡령, 홀)

⑤ 용왕²⁷⁾은 (원유관, 조색단식 홍포상의, 황갈색 하상, 방심곡령, 홀)<圖1-②,③>

⑥ 무독귀왕²⁸⁾은 (7량 원유관, 단식(端飾) 홍색 대수상의, 연갈색 하상, 홍색 폐술, 폐옥, 결대, 홍석)<圖1-①>

⑦ 태자²⁹⁾는 (원유관, 단식 연갈색 대수 상의, 홍색 폐술, 대대, 방심곡령)

⑧ 왕³⁰⁾은 (원유관, 단식 암녹, 흑색 대수 상의, 방심곡령, 결대) 등의 착용예를 볼 수가 있는 것으로 봐서 이상의 조복제 착용예는 원과 교류당시, 고려왕의 송식(宋式) 통천(원유)관, 착용 조복제 (복색(服色)제도는 다름)의 예라고 말할 수 있겠

18) 서북 베르린 미술관 소장, 지장 10왕도

19) 일본 일평사 소장, 지장 10왕도

20) 요사 권56, 지제 25, 의위지, 2.

21) 송사, 권156, 지제 106, 여복 5.

22) 금사, 권43, 지제 24, 여복 6.

23) 암산사, 금대벽화, 도. 6.

24) 원사 권77, 지제 27 하, 제사 6.

25) 동아대학교, 고전 연구소, 역주, 고려사, 여복.

26) 일본 서북사 소장, 판경 변상서품도

27) 일본 친왕원 소장(1350), 미륵하생경 변상도.

28) 일본 원각사 소장, 지장보살화

29) 일본 대운사 소장, 판경 변상서품도

30) 일본 대운사 소장, 상동 변상도



〈圖1〉 남자 고위관직자 복식(1)

- ① 일본 원각사 소장, 지장보살화 중 무독귀왕의 통천(원유)관, 고려불화, 圖45.
- ② 일본 친왕원 소장, 미륵하생경변상도 중 왕의 통천(원유)관, 고려불화, 圖5.
- ③ 〈圖1-②〉과 동
- ④ 호노루루 박물관소장, 10왕도중 왕, 김영주, 조선시대 불화연구, 지식산업사.

다.

(나) 백관의 조복구성은 송사³¹⁾에 보면, 진현(7-2량 구분있음)관, 해치관, 농관 등의 신분의 등차에 따른 관모제에 주의(朱衣), 주상(朱裳), 백색중단, 대대, 혁대, 비색폐슬, 옥견, 옥폐, 금수, 백말, 흑피리, 방심곡령, 훌제인데, 고려사의 종조 상정예제에 백관의 조복제는 보이지 않으나 본 고찰 대상 고려 탱화속에서는,

④ 진현관 혹은 농관, 조색단식이 된 홍색 대수상의, 연갈, 황금색 하상, 홍색 폐슬, 결대, 훌, 착용고관³²⁾

⑤ 해치관, 조색단식이 된 홍색 상의, 착용 왕 혹은 고관³³⁾〈圖2-①〉

⑥ 진현관, 원정 보주식관(寶珠飾冠), 조색단식이 된 홍색 대수 상의, 연갈색, 백색 하상, 홍색 폐슬, 방심곡령, 홍석, 집흘³⁴⁾ 착용왕 혹은 고관

⑦ 왕, 혹은 고관복식³⁵⁾은 위와 같다.

이상과 같이 고려불화 속에서 조복의 착용예를 볼 수가 있었다. 또한 원대, 영락궁 벽화³⁶⁾상에서 백관이 착용한 것으로 고찰된, 원정 보주관(圓頂寶珠冠) 등의 관모에, 고려 특유의 자황이나 홍색 지질(地質)에 화려한 황금색 문식이 있는 상의에, 하상은 연갈, 연황, 백색의 복식을 착용한 것, 상하 동색이 아니며, 하상에 단(端)주름 장식³⁷⁾이 있는 것, 흑석(黑鳥)이 아닌 홍석(紅鳥) 착용 등은 문헌기록상의 송, 원제와 다르다. 그러나 홍색 폐슬착용 등은 문헌기록과 동일하다.

(다) 그런가 하면, 조복제로 추정되는 왕과 태자가 착용한 복제는 소관(小冠), 연갈색 상의, 하군에, 홍색 폐슬을 착용하고, 폐슬위에 결대(結



〈圖2〉 남자 고위관직자 복식(2)

① 일본 대역사 소장, 수월관음도 중 공양왕의 해치관, 고려불화, 圖30.

② 일본 서복사 소장, 관경변상서품도 중 빈비 사라왕의 소관, 고려불화, 圖2.

③ 〈圖2-②〉와 동

帶), 방심곡령, 훌을 들고있는 경우³⁸⁾는 고려 특성적 국왕과 태자복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圖2-②, ③〉 金代 태자가 직무를 볼때나, 사소빈객 접견시 소모(小帽)에 조삼(皺衫), 옥대를 하는 것³⁹⁾으로 봐서, 복색은 다르나 소관 착용예 등은 금의 태자복과 같다.

(라) 또, 불화상으로 태자가 원유관에 연갈색 상의하상, 홍색 폐슬, 방심곡령, 왕이 통천관, 흑록색 상의, 홍색 폐슬, 방심곡령, 훌을 쥐는 경우⁴⁰⁾도 있어 고려자체의 복색도 일치하지 않음은 회도(繪圖) 구성 채색 상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겠다. 고려 탱화중의 왕, 태

31) 송사, 권156, 치제 106, 여복 5.

32) 일본 친왕원 소장, 미륵하생경변상도

33) 일본 대역사 소장, 수월관음도

34) 일본 일광사 소장, 지장보살화

35) 일본 정가당 소장, 지장 10왕도

36) 영락궁 벽화, pp.31-33.

37) 일본 원각사 소장, 지장보살화중 무독귀왕

38) 일본 서복사 소장, 관경변상 서품도

39) 금사, 권제 43, 치제 24, 여복, 하.

40) 일본 대운사 소장, 관경변상 서품도

자, 백관 등은 대개 조복용 원유관, 양관(梁冠)을 착용하고 있다.

③ 공(상)복 :

(가) 요대백관⁴¹⁾은 공복으로 복두, 강사단의(絳紗單衣), 상복으로 양관, 찬집(竇執)으로 5품 이상이 절상 복두에 자포(紫袍), 훌, 6품 이하가 복두에 비의(緋衣)를 착용하였고, 송사⁴²⁾에 보면, 송초의 공복구성은 복두에 복색은 자, 주, 톡, 청의 사색분별에 곡령대수, 하란장포, 속대, 어대, 화, 혹은 리를 착용하였으나, 뒤에 원풍년간(1078-1085)에 자, 비, 톡 3색제로 바뀌었다. 복두의 경우 각은 초기에는 전개(展開) 평직형의 전각(展角)복두였으나, 하각도 있었다. 즉 4대의 2대는 뒤에 느려내리고, 2대는 위로 구부려 두정계(頭頂髻) 앞에 묶어두었다. 묶을 때 모양은 호도모양으로 묶는다하여 '호도결건'이라고도 하였다. 금제⁴³⁾는, 복두에 곡령의 자, 비, 톡 3색 복색제에 하란을 가하였고, 문관은 금, 은어, 대식(帶飾)하였다. 원제⁴⁴⁾는 원대 한식(漢式)백관의 공복제는 전각복두에 자, 비, 톡, 3색제의 곡령 장포를 착용하였고, 백사 중단, 대, 직금수신(織錦綬神)(동환 2개 부착), 동속대, 백라방심곡령, 동폐, 백말, 조화(早靴), 훌을 갖는다. 옷에 두는 문양과 크기로 작품을 구분하였다.

(나) 고려의 경우, 태조 초부터 공복제는 조복제와 겸하여 왕이하 백관이 복두에 착용하였으며, 초기 자, 단, 비, 톡, 사색 복색제는 목종 원년부터 자, 비, 톡, 청, 사색제로 바뀌었다가 문종31년부터 자, 비, 톡의 3색제로 바뀌어⁴⁵⁾ 송, 금, 원,

고려의 제도가 문헌기록상으로는 동일하다. 본 고찰대상 불화에서는 주로 백관이 공(상)복으로 전각, 하각, 말액, 화각복두 등이 착용되어진 예가 고찰되었으며, 의복으로 곡령, 하란장포⁴⁶⁾를 착용하고, 복색은 진녹, 연갈색인 경우, 하각복두, 자색이나 홍색인 경우, 말액복두 착용 등이 있어, 대개 고려 문종30-31년 제정 공복색제인, 자, 비, 톡(연갈색) 등으로, 공(상)복의 경우 고려, 요, 송, 금, 원의 문헌기록과 팽화상의 복식제도와 대개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위신(衛臣)⁴⁷⁾이 원형의 소모에 연녹색 원령장포, 위요(圍腰), 속대, 장화 착용의 경우 고려 특성적 공(상)복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다) 수문장의 경우⁴⁸⁾ 화각복두, 말액 등의 관모에 교령, 연갈색 대수상의, 문식이 있는 홍색복지에 조색 단장식(臘色端裝飾)이 된 하군을 착용하고 내하의로 무릎아래를 묶어준 연갈색 소구고, 위요, 화, 리, 착용 등은 고려시대 일본의 화엄연기중의 송식(宋式) 수문장이나, 원대 영락궁 벽화 중의 수문신과 복식제도가 대동소이하다.

(라) 보개를 든 시종⁴⁹⁾의 경우, 하각 복두에 원령의 황금색 문식이 화려한 홍포를 착용한 것 역시 고려 특성적 공(상)복 착용예가 아닌가 한다.

(마) 거여 시종증 황금색 연화관, 원령의 둔부선 길이 분홍색 소수 상의에 백색, 소구의 하고를 착용한 경우 역시 고려 특성적 공(상)복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④ 평상복 :

두건⁵⁰⁾이나 입모(笠帽), 진모(巾帽), 소관 등을

41) 요사, 권56, 지제 25, 의위지, 2.

42) 송사, 권156, 지제 106, 여복, 5.

43) 금사, 권체 43, 지제 24, 여복, 하.

44) 원사, 권78, 지제 28, 여복, 1.

45) 임명미, (1993. 5). 앞글, pp.39-40.

46) 일본 일광사 소장, 지장 10왕도 중 판관.

; 서독 베르лин 동양미술관 소장, 지장 10왕도 중 판관.

; 일본 정가당 소장, 지장 10왕도 중 판관.

47) 일본 대온사 소장, 관계변상서품

48) 일본 대온사 소장, 관경변상 서품도

49) 일본 친왕원 소장, 미륵 하생경변상도

50) 주석보, 중국 복식사, (1984), p.280, 318, 319, 323에서는 '풍모(風帽)'를 표기함.

착용하거나, 노계(露鬢)한 후, 의복으로,
 ⑨ 건모, 원령소수 장포⁵¹⁾
 ⑩ 입모, 무수상의, 단끈(短緼)⁵²⁾
 ⑪ 노계, 둔부선 길이교령 착소수, 속대, 소구하고⁵³⁾를 착용 삼국시대 이래 민족의 고유복을 착용하고 있다.

⑤ 승복 :

- ② 소관,⁵⁴⁾ 교령 대수(大袖)의 대금상의(對襟上衣)⁵⁵⁾ 착용
- ④ 두건, 하군, 하상⁵⁶⁾을 착용, 고려는 불교를 국가의 이념으로 하였던 불교국이었고, 본 연구의 고찰 대상이 불화이기 때문에 고려시대 승복에 관한 고찰은 자료가 풍부하다고 볼 수 있다. 스님 머리에 외복은 대개 교령의 대수장삼에 우견편단의 가사를 걸치는 양식이고, 복제, 수식재료 상의 차이가 있다. 신발은 리, 혜, 샌들을 착용하고 있다. 즉,
- ⑤ 황갈색 대수장삼, 암녹색 가사, 홍색 샌들⁵⁷⁾
- ⑥ 교령의 문식이 된 대수 장포, 가사⁵⁸⁾
- ⑦ 대수장포, 가사⁵⁹⁾

- ⑧ 대수장포, 가사⁶⁰⁾
- ⑨ 대수장삼, 장술군, 가사⁶¹⁾
- ⑩ 우견편단 가사⁶²⁾
- ⑪ 대수교령장삼, 가사⁶³⁾
- ⑫ 대수교령장삼, 가사⁶⁴⁾

⑥ 융, 무장복 :

융, 무장복은 투구, 견갑, 혹은 페견, 페박, 갑신, 양당갑, 위요갑, 군갑, 족갑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 ⑨ 경북 영주 부석사 조사당 벽화의 사천왕상
- ⑩ 일본 천왕원 소장, 미륵하생경 변상도중 사천왕상
- ⑪ 일본 일광사 소장, 지장 10왕도중 사천왕상
- ⑫ 서독 베르린 동양 미술관 소장, 지장 10왕도중 사천왕상
- ⑬ 호암 미술관 소장, 지장보살도중 사천왕상
- ⑭ 일본 정가당 소장, 지장 10왕도중 사천왕상 등에서 상기한 투구이하 족갑까지 고려의 융무장복을 볼 수가 있다.

51) 아미타 구존도중 평서민, 국립 박물관 소장

52) 미륵 하생경 변상도중 평서민, 일본 친왕원 소장

53) 미륵하생경 변상도중 추수하는 농민(일본 지은원 소장); 미륵하생경 변상도중 추수하는 농민(일본 친왕원 소장)

54) 주석보, (1984), 앞책, p.346에서는 '승모(僧帽)'로 표기하고 있음.

55) 제과 달다상, 일본 종지사 소장.

56) 국립 박물관 소장, 아미타 구존도중 담무걸 보살

- : 일본 송미사 소장, 아미타 구존도 지장보살
- : 일본 균율미술관 소장, 아미타 구존도 지장보살
- : 일본 균율미술관 소장, 지장보살도, 지장보살
- : 일본 선도사장, 지장보살도, 지장보살
- : 일본 덕천 예명회 소장, 지장보살도, 지장보살
- : 일본 양수사 소장, 지장보살도, 지장보살
- : 서독 베르린 미술관 소장, 지장보살 10왕도, 지장보살
- : 일본 정가당 소장, 지장보살 10왕도, 지장보살

57) 일본 대운사 소장, 관경서품 변상

58) 일본 친왕원 소장, 미륵하생경 변상도

59) 일본 서복사 소장, 관경 변상도

60) 국립 중앙 박물관 소장, 오백 나한도

61) 국립 중앙 박물관, 아미타 구존도 배면 스님

62) 국립 중앙 박물관, 오백 나한도

63) 일본 개인 소장, 오백 나한도

64) 일본 원각사 소장, 지장보살도

- ⑦ 동자⁶⁵⁾ : 머리는 대개
⑧ 정중(頂中)에 1 각총(角總)
⑨ 정중, 양이하(兩耳下) 3 각총
⑩ 정중에 쌍각총
⑪ 양이하 쌍각총, 등을 만들고, 흥색 발대로 둑
어주었다.
의복은,
⑫ 견의, 위요, 하군, 속대, 적족(赤足)
⑬ 견의, 위요, 하고(무릎아래 둑어줌), 속대,
샌들
대개 완부, 팔목, 발목에 장식을 하였다.

- 65) 일본 대덕사 소장, 수월관음도종 동자
: 일본 대화문화관 소장, 수월관음도종 동자
: 일본 경신사 소장, 수월관음도종 동자
: 일본 양수사 소장, 수월관음도종 동자
: 일본 대덕사 소장, 수월관음도종 동자
: 일본 성종 래영사 소장, 수월관음도종 동자
: 일본 천초사 소장, 수월관음도종 동자
: 일본 동정 제성회 유린관 소장, 수월관음도종 동자

- 66) 일본 성택원 소장, 마리지천왕상
: 경북 영주 부석사 소장, 제석, 범천상
: 일본 정가당, 서독 베르린 미술관 소장 지장 10왕도종 제석, 범천
: 일본 대덕사, 양주사, 태산사, 성종래영사 등 소장, 수월관음도
: 일본 친왕원 소장, 미륵하생경 변상보살
: 일본 상삼신사 소장, 아미타 삼존도 보살
: 일본 법은사, 화림사, 근율 미술관, 구세열해 미술관 소장, 아미타 삼존도 보살
: 호암 미술관 소장, 아미타 삼존도
: 국립중앙 박물관 아미타 9존도 보살
: 일본 송미사 소장, 아미타 구존도
: 미국 샌프란시스코 동양미술관 소장, 아미타 9존도
: 일본 근율미술관 소장, 아미타 9존도

- 67) 일본 지은원 소장, 미륵하생경 변상도종 용녀

- 68) 일본 대은사 소장, 관경변상, 서풀도, 위데휘 왕비
: 산서성 암산사 소장, 암산사 금대 벽화중 왕비

- 69) 일본 대덕사 소장, 수월관음도종 귀부인
: 일본 지은원 소장, 미륵하생경 변상도종 용녀, 진악녀
: 일본, 화엄연기중 귀부인

- : 산서성 신강현, 직익묘 벽화, 귀부인
: 일본 대은사 소장, 관경변상 서풀도 500시녀

- 70) 일본 대은사 소장, 관경변상 서풀도 500시녀
: 산서성 암산사 소장, 암산사 금대 벽화중 시녀
: 산서성 신강현, 직익묘 벽화 귀부인

- 71) 프랑스 기내 미술관 소장, 수월관음도
: 호암 미술관 소장, 수월관음도

- : 일본 대덕사, 양수사, 태산사, 성종래영사, 담산신사, 등정 제성회유린관 등 소장, 수월관음도

- 72) 일본 덕천 예명회, 양수사
: 서독 베르린 동양 미술관
: 일본 정가당
: 원각사 소장, 지장보살

2. 여자복식

1) 발양 및 두식

(1) 여자들은 대개 고계(高髻)(단계(單髻), 쌍계(雙髻), 경번계)한 후

① 보주식 화관⁶⁶⁾

② 차륜식 두식⁶⁷⁾

③ 부챗살 두식⁶⁸⁾

④ 흥색 발대식⁶⁹⁾

⑤ 포계식⁷⁰⁾

⑥ 귀부인으로 표현된 보살들은 얇고 비치는 화려한 문식이 된 사(紗), 라(羅)제의 머리수건⁷¹⁾, 두건⁷²⁾ 등을 착용하고 있다.

⑦ 떨잠, 보주식 삽식⁷³⁾

⑧ 이상의 여러가지 두식을 3종~4종 복합하여 사용하였다.

(2) 고계하지 않은 경우

① 앞가르마를 타고 양이하에서 홍색 발대로 끓여줌

② 앞가르마를 타고 독뒤에서 홍색 발대로 하나로 끓어줌⁷⁴⁾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머리모양 및 두식은 당시

래 신라, 오대중국, 고려, 북송, 요, 금, 남송, 원, 명 등의 부녀자들의 광통적인 두식 및 발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2) 복식

(1) 왕실 귀족부인들의 상의는 우암교령이며, 것에 운견(雲肩)이 부착⁷⁵⁾〈圖3~①,②,③〉되어 통제된 유형으로 소매는 대수이되, 〈圖3-①,②,③〉



〈圖3〉 여자 상류층의 복식(1)

① 일본 서복사 소장, 관경변상도 중 왕비,
고려불화, 圖2.

② 〈圖4-③〉과 동

③ 일본 지은원 소장, 미륵하생변상도 중
진악천녀, 고려불화, 圖6.

73) 일본, 성택원 소장, 마리지천왕상

: 산서성 신강현, 직익묘 벽화 귀부인

74) 일본 지은원 소장, 미륵하생경 변상도 중 시녀

75) 경북 영주 부석사 조사당 벽화, 제석상

: 일본 성택원 소장, 마리지천왕상

: 일본 정가당 소장, 지장 10왕도 중 제석, 범천상

: 서독 베로린 미술관 소장, 지장 10왕도 중 범천상

: 일본 대덕사 소장, 수월관음도 중 귀부인

: 일본 친왕원 소장, 지은원 소장, 미륵하생경 변상도 중 용녀

: 일본 대은사 소장, 관경 변상서품 왕비상

- ① 팔꿈치부터 소매 끝이 직선으로 넓어진 경우
- ② 팔꿈치부터 소매 끝이 곡선으로 넓어진 경우⁷⁶⁾
- ③ 팔꿈치부터 소매 끝 넓어진 부분의 복색과 품판의 복색과 복재가 다른 경우⁷⁷⁾〈圖3-①,②〉
- ④ 거의다가 팔꿈치 부위에 여의습(如意褶)⁷⁸⁾
잔주름 장식이 되어 있는데, 여의습 장식은,
ⓐ 길이와 넓이가 일정하게 고르게 주름을 잡아
처리한 경우⁷⁹⁾
- ⓑ 꽂잎처럼 처리되고 보주식 장식을 한 경우⁸⁰⁾
- ⓒ 새의 깃털처럼 길이가 길고, 짧게 처리한 경
우⁸¹⁾
- ⓓ 마름모꼴로 된 천을 잘게 주름잡아 장식한
경우⁸²⁾로 대별할 수가 있었다.

(2) 하의는 장군을

① 상의 위에 들러여며 착용하는 방식⁸³⁾〈圖

- 76) 일본 대은사 소장, 관경 변상서품도 왕비
- 77) 일본 서복사 소장, 관경 변상서품도 왕비
- 78) '심'은 '여의 수문간습(如意袖紋間褶)'이라하고, '이백'의 시에서는 '해동청(海東青)이 날으는 듯한 소매'라고
도 하였다고 함. (심종문, 중국고대 복식 연구, 1981. p.273.)
- 79) 일본 친왕원 소장, 미륵하생경 변상도 중 진악녀
: 일본 정가당, 서독 베르린 미술관 소장, 지장 10왕도 중 제석, 범천
- 80) 일본 성택원 소장, 마리지천왕상
- 81) 일본 대덕사 소장, 수월 관음도 중 귀부인
: 일본 친왕원 소장, 미륵하생경 변상도 중 용녀
- 82) 일본 대은사 소장, 관경 변상 서품도 왕비
- 83) 일본 서복사 소장, 관경 변상서품도 중 오백시녀(五百侍女)
: 일본 지은원 소장, 관경 변상도 중 공양부인
: 일본 대덕사 소장, 수월 관음도 중 귀부인
: 일본 성택원 소장, 마리지천왕상
- 84) 일본 친왕원 소장, 미륵하생경 변상도 중 시녀
: 일본 대덕사 소장, 수월 관음도 중 부인
: 일본 서복사 소장, 관경변상 서품 왕비
- 85) 일본 성택원 소장, 마리지천왕상
: 일본 지은원 소장, 미륵하생경 변상도, 진악녀
: 일본 친왕원 소장, 미륵하생경 변상도, 용녀
- 86) 일본 친왕원 소장, 미륵하생경 변상도, 시녀
: 일본 지은원 소장, 미륵하생경 변상도, 용녀
- 87) 일본 지은원 소장, 관경변상도, 공양부인
: 일본 친왕원 소장, 미륵하생경 변상도, 시녀
: 일본 지은원 소장, 관경변상도, 진악녀(秦樂女)
: 일본 성택원 소장, 마리지천왕상
- 88) 일본 지은원 소장, 관경변상도 중 진악녀
- 89) 경북 경주 부석사, 조사당 벽화, 범천, 제석상
: 일본 서복사 소장, 관경 변상서품도, 500시녀
: 일본 친왕원 소장, 미륵하생경 변상도, 용녀, 진악녀, 시녀
: 일본 지은원 소장, 미륵하생경 변상도 중 용녀, 시녀, 진악녀
: 일본 대덕사 소장, 수월관음도 중 귀부인
: 서독 베르린 미술관 소장, 지장 10왕도 중 제석, 범천
: 일본 정가당 소장, 지장 10왕도 중 범천, 제석
: 일본 성택원 소장, 마리지천왕상

4-①,②〉

② 둔부선 길이, 허리길이, 상의 아래 착용하는
방식⁸⁴⁾〈圖4-⑥〉 등으로 나눌 수가 있고, 장군 아
랫 도련을 부챗살 모양으로 잔주름을 잡아 장식하
기도 하였다.⁸⁵⁾

(3) 하의로 장군을 착용한 위에 대개 홍색복지
에 문식이 화려한 폐슬을 하였는데,

① 앞뒤에 한 경우⁸⁶⁾〈圖4-③〉 〈圖3-②〉

② 앞에만 한 경우⁸⁷⁾로 나눌 수가 있고, 〈圖
3-③〉 폐슬은 대개 무릎길이 장방형이나 〈圖
4-③,④〉 혀모양의 타원형에 가장자리에 잔주름
장식이 된 경우도 있었다.⁸⁸⁾〈圖3-③〉

(4) 대부분의 고려 부인들은 상의 하상을 착용
한 위에 피건을 걸치고 있었다.⁸⁹⁾〈圖3-①,③〉
〈圖4-①,②〉



<圖4> 여자 시녀 복식(2)

- ① 일본 서복사 소장, 관경변상도 중 시녀, 고려불화, 圖2.
- ② 일본 서복사 소장, 관경변상도 중 시녀, 고려불화, 圖2.
- ③ 일본 친왕원 소장, 미륵하생경변상, 고려불화, 圖5.
- ④ 일본 친왕원 소장, 미륵하생경변상, 고려불화, 圖5.
- ⑤ <圖2-①>과 동
- ⑥ <圖2-①>과 동

(5) 대개 부녀자 복식에는 흥색과 백색의 한개의 결대(結帶)를 앞중심과 등뒤, 좌측옆에 내려드리워 수식을 하였다. 신분이 높을수록 결대는 한개가 아니고 2개인 경우도 있었다.

① 등뒤 백색⁹⁰⁾<圖3-①>

② 등뒤 흥색⁹¹⁾<圖4-②>

③ 앞중심 백색⁹²⁾

④ 좌측옆 백색⁹³⁾

⑤ 좌측옆 흥색⁹⁴⁾<圖4-⑤>

⑥ 앞중심 녹색 2개의 결대⁹⁵⁾<圖3-③>

이상에서 보면 고려 탕화상의 왕실 귀족부인들의 착장양식은 대개 다음과 같이 집약할 수가 있다.

① 고계한 후, 포계(泡髻)하거나 흥색의 발대(髮帶)로 둑어주고, 차료식, 부챗살 두식을 하고, 각종 금은 보석 등의 보주식(寶珠飾)을 한 화려한 보관이나 보주식 멀잠을 군데군데, 화려하게 머리에 꽂아 치장하였다.

② 금, 은, 수정, 산호, 비취, 사파이야, 루비 등 의 온갖 보석으로 꾸민, 이식, 천, 경식, 완부식 등 의 장신구를 하였다.

③ 상의는 교령에 운견이 부착되어 있고, 팔꿈치부터 소매끝이 넓어진 대수상의를 착용하였다. 팔꿈치부위에는 반드시 여의습 주름을 잡아 장식하였고, 주름은 ⑦ 길이와 넓이가 일정한 경우, ⑧ 꽃잎처럼 처리된 경우, ⑨ 새의 깃털처럼 길이가 다르게 처리된 경우로 나눌 수가 있었다.

④ 하의의 착용은 일반적으로 상의 위에 둘러서 여며 입으며, 장군의 아랫도련에는 잔주름을 부채살처럼 잘게 잡아 장식해 주었다. 하의를 둔부선, 길이 상의나 요부길이 상의 아래 착용한 경우도

- 90) 일본 대은사 소장, 관경변상서품, 왕비
 : 일본 친왕원 소장, 미륵하생경 변상도, 시녀
- : 일본 친왕원 소장, 미륵하생경 변상도, 왕비
- 91) 일본 서복사 소장, 관경변상서품, 오백시녀
- 92) 일본 지온원 소장, 관경변상, 진악녀, 공양부인
 : 일본 친왕원 소장, 미륵하생경 변상, 시녀
- : 경북 영주 부석사 조사당 벽화, 제천상
- 93) 일본 대역사 소장, 수월관음도 시녀
- 94) 일본 대역사 소장, 수월관음도 시녀
- 95) 일본 성택원 소장, 마리지천왕상

있다.

⑤ 장군의 앞과 뒤에는 대개 홍색의 화려한 문양이 있는 폐슬과 후수를 드리웠는데, 모양은 ① 장방형, ② 타원형으로 나눌 수 있고, 타원형의 경우 잔주름을 가장자리를 빙들려 장식하였다.

⑥ 등뒤, 뒤허리아래 앞중심 오부아래에 1개의 결대하여 길게 내려 드리웠다. 신분이 높은 경우 2개의 결대를 드리우기도 하였다. 뿐만아니라 이와 같은 고려 부인의 양식은 당시 고려를 전후한 주변제국 당, 오대중국, 발해, 남국(통일)신라, 송, 금, 일본, 원, 명의 부녀자들 복식중 귀족 부인들의 양식과 동일하였다.⁹⁶⁾

⑦ 궁중 여관등은 고계, 포계, 보주식 한 후, 차소수 상의위에 하상을 들러여며 입고, 피건을 걸치고 있다.

3. 족의 및 신발은 남녀가 동형제를 착용하였으리라 추정하며, 석, 화, 혜, 리, 샌들 등을 신분과 계층에 따라 다양하게 다양한 복재로 만들고 수식하여 사용하였고 신분이 높을 수록 화형(花型), 흘두형(笏頭型), 쌍흘두형(雙笏頭型) 등의 홍색이나 녹색의 석(馬)을 사용하였다.

4. 불화속에 등장하는 제 인물들이 착용한 복색

은 화려하면서도 아름다운 붉은색, 푸른색, 초록색, 연갈색, 갈녹색 등 여러가지 아름다운 색깔들이 황금색 채색, 여러가지 문양과 어울려 진하고 화려하지만 차분하면서 고상하고 은은한 기품 있는 복색으로, 야하거나 거부감을 주지 않는 배색 기법과 채색사용과 문식의 조화, 장신구의 색 조합 등은 당시의 고도의 색채감각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5. 의문(衣紋)⁹⁸⁾은 연당초문, 연화문, 보상화문, 보상당초문, 국화문, 국당초문, 목단 당초문, 초화문, 당초문, 운문, 운당초문, 운봉문, 극락조문, 7보문, 연주문, 구갑문, 홍포문, 연능문 등이 다양하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황금색, 은색 등 화려하면서 차분한 색깔로 정교하게 묘사되어 고상하고 기품있는 복재의 질감을 나타내주고 있다.

6. 바스러질듯 내비쳐 보이는 얇고 화려한 사, 라, 능, 단 등의 각종 문현기록⁹⁹⁾ 상의, 직물의 착용 예 역시 불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

IV. 요 약

① 현존 고려불화중,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종

96) 가동승구, 서역의 미술, 3, 동경, 강담사.

: 돈황연구원, 안서 유림굴, 평범사, 1993.

: 문물 출판사, 돈왕 막고굴, I. II. III. IV. V. 문물 출판사.

: 산서성 고전축 보존 연구소편, 암산사 금대벽화.

: 소송무미, 화엄연기, 일본 회전대성, 17, 1990.

: 중국 국제 서적 무역 협회, 원대 영락궁 벽화, 1985.

: 양자명 외 1인, 직익묘 벽화, 인민 미술 출판사, 1982.

: 김문지, 발해의 복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3.

: 정재훈, 문화재대관, 서울, 1986.

97) 일본 경가당 소장, 지장 10왕도중 판관

: 일본 경가당 소장, 지장 10왕도중 사자

: 일본 천초사 소장, 수월관음도중 선재동자

: 일본 대은사 소장, 관경변상서품 목련존자

: 일본 호암미술관 소장, 지장보살도중 사천왕상

: 일본 경가당 소장, 제석과 법천석

98) 임영주, 고려불화의 문양, 고려불화, 한국의 미 7, 중앙일보사, 1989.

99) 장경희, 14C, 고려 영직연구, 미술사학연구, 190, 191, 1991.

: 조효숙, 고려시대, 견직률의 실증적 연구, 복식 20, 한국복식학회지, 1993. 5.

: 심미자, 조효숙, 1302년 아마타 복장직물의 분석, 1302년 아마타 복장직률 조사연구, 온양민속박물관, 1991, pp.105-144.

30여점의 팽화를 중심으로, 고려시대 복식을 알아보기로 연구하였다.

② 고찰대상 작품은 대개 충렬왕 12년(1286) 이후 충정왕 2년 사이(1350) 64년간 작품으로 주로 원과 교류당시 복식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남자는 대개 상투를 만들어 관, 건, 모를 착용하였다. 동자등은 1,2,3각종 머리를 하고 발대로 둑었다.

④ 관모로 면류관, 통천(원유)관, 진현관(양관), 농관, 해치관, 복두, 연화관, 건, 입모 등이 있었고, 투구류 등이 있었다.

⑤ 남자의 복식은

ⓐ 제복으로 요, 송, 금, 원과 착용복색이 일치하는 청, 협색은 아니지만, 채색의 퇴색여부는 알 수 없으나, 흑색, 녹청색으로 대동소이 하다.

ⓑ 조복은 고려의 여복지 상으로는 명기되지 않음, 왕의 통천(원유)관제의 조복, 백관의 진현관, 해치관, 농관착용의 조복제를 팽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국왕, 태자는 대개 통천(원유관)관제의 관모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금의 제도인(복색은 다르다.) 문현기록과 일치하는, 소관을 착용한 경우도 있었다.

ⓓ 백관의 공(상)복제인 복두에, 자, 비, 록, 청곡령대수포의 복색제는 대개 일치하였다.

ⓔ 위사, 수문신 등이 화각, 교각, 말액복두에, 위요, 내하의로 무릎아래를 묶어준 소구고, 화, 리를 착용하고 병기를 갖고 있는 것 등은 송, 원식 복식제도와 일치하였다.

ⓕ 보개, 거여 시종 등의 황금색 문식이 화려한 복장 등은 고려특성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평상복에 착용하는 건, 관, 모, 혹은 노계한 후, Ⓛ 원령소수장포, Ⓜ 무수상의, 단끈, Ⓝ 둔부선 길이 교령 착소수 상의, 속대, 소구하고, 로 전형적인 삼국시대이래 전통복을 착용하고 있다.

ⓗ 승복으로 Ⓛ 대수장포, 가사 Ⓜ 대수장삼, 장습군, 가사 Ⓝ 통견 혹은 우견 편단 가사를 착용하

고 있다.

ⓐ 용, 무장복으로 투구, 견갑, 혹은 피견, 피박, 홍갑, 복갑, 양당갑, 위요갑, 군갑, 죽갑 등을 착용하고 병기를 휴대하고 있다.

ⓑ 동자등은 견의, 위요, 하군, 속대, 경식, 완부식, 족식, 천을 하였다.

ⓒ 부녀자들은 대개 고계(쌍계, 단계, 경번계) 한후, 발대하고 Ⓛ 보주식 화관 Ⓜ 차륜식 두식 Ⓝ 부챗살 두식 Ⓞ 포계식 Ⓟ 떨잠 보주식 Ⓛ 사라제의 두건, 개두, 몽수를 착용하였다.

ⓓ 고계하지 않은 경우, Ⓛ 양이하에 계를 만들고 홍색 대로 묶어줌 Ⓜ 목뒤에서 홍색 발대로 하나로 묶어줌

ⓔ 귀부인의 의복은 Ⓛ 우임 교령에 짓에 운견이 부착된 여의습 부착 소매 상의, 장군을 상의위에 둘러 여며 입거나, 내하의로 장군을 착용하였다. Ⓜ 둔부선 길이 교령 상의 혹은 허리길이 상의, 내하의로 장습군을 착용하였다. Ⓝ 홍색, 앞 혹은 뒤 폐슬, 앞, 뒤, 혹은 양옆 결대하고, 피건을 걸쳤다. 당, 오대중국, 발해, 남국(통일), 송, 금, 원, 명의 부녀복식과 일치한다.

ⓕ 석, 화, 혜, 리, 샌들(sandle) 등을 신분에 따라 착용하였다.

ⓖ 각종 보석으로 만든 관식, 경식, 이식, 천식, 완부식 등을 신분과 계층, 남녀, 노소에 따라 달리 한 장신구를 착용하였다.

ⓗ 연당초문, 보살화문, 국화문, 운문, 7보문 등 황금색으로 화려한 문식을 하였다.

ⓘ 복색은 붉은색, 푸른색, 초록, 연갈, 갈녹색 등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색깔로 은은하면서도 고상하고 기품있는 복색조합의 복식을 착용하였다.

참고문헌

〈국내서적〉

1. 팽 화

가) 단행본 및 도록

- (1) 권희경, 고려 사경의 연구, 미진사, 1986.
- (2) 경인 문화사, 요사, 서울 경인 문화사, 1979.
- (3) 경인 문화사, 송사, 서울 경인 문화사, 1979.
- (4) 경인 문화사, 금사, 서울 경인 문화사, 1979.
- (5) 경인 문화사, 원사, 서울 경인 문화사, 1979.
- (6) 김원룡의 편, 고려불화, 한국의 미 7, 중앙 일보사, 1989. 5
- (7) 김영주, 조선시대 불화 연구, 지식산업사, 1986.
- (8) 동아대학교, 고전연구소, 역주 고려사, 1982.
- (9) 문명대, 한국의 불화, 열화당, 1981.
- (10) 민족문화 추진위원회, 주역. 고려사절요, 1977.
- (11) 민족문화 추진위원회, 고전 국역 총서, 고려도경, 1978.
- (12) 삼성출판사, 고려, 영원한 미, 1993. 삼성 문화재단
- (13) 안광석, 화엄 연기, 의상회의 주변, 1990.
- (14) 이동주, 한국 회화사론, 열화당, 1987.
- (15) 이동주 감수, 고려불화, 중앙일보사, 1981.
- (16) 임명미, 몽고복식, 경춘사, 1992.
- (17) 최순우, 고려, 조선-한국의 미술 1-, 서울, 도산문화사, 1981.
- (18) 한정섭의 1인, 불교 신장 연구, 이화문화 출판사, 1992.
- (19) 홍윤식, 한국의 불화, 1984.
- (20) 홍윤식, 고려불화의 연구, 동화 출판사, 1984.

나) 논문

- (1) 권영필, 한국 불화에 나타난 산수요소의 원류와 그 발달(上), 미술자료 35, 1984.
- (2) 권영필, 한국 불화에 나타난 산수요소의 원류와 그 발달(下), 미술자료 36, 1985.
- (3) 권희경, 고려의 지장보살화, 동양문화연구 5, 경북대학교 중앙문화연구소, 1978.
- (4) 권희경, 고려 사경의 발원문에 관한 연구, 고고미술, 173, 한국미술 사학회, 1987.
- (5) 김정희, 고려말 조선전기 지장보살화의 고찰, 고고미술, 157, 한국미술 사학회, 1983.
- (6) 김종대, 고려 오백나한상고, 공간, 205, 1984.
- (7) 김동현, 부석사 무량사전과 조사당, 불교미술 3집, 동국대학교 박물관, 1977.
- (8) 문명대, 고려 관경변상도의 연구, 불교미술 6, 동국대학교 박물관, 1981.
- (9) 문명대, 부석사 조사당의 벽화시론, 불교미술 3, 동국대학교 박물관, 1977.
- (10) 문명대, 고려 불화의 조성 배경과 내용, 고려불화, 중앙일보사, 1981.
- (11) 문명대, 노영필 아미타 구준도 이면 불화의 재검토, 고문화 18, 한국대학 박물관 협회, 1980.
- (12) 문명대, 고려 관경변상의 연구, 불교미술 6, 동국대학교 박물관, 1981.
- (13) 문명대, 고려 불화의 양식 변천에 대한 고찰, 고고미술, 184, 1989.
- (14) 문광희, 고려 불화속에 나타난 관모 및 계양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 (15) 박영숙, 고려시대 지장도상에 보이는 몇 가지 문제점, 고고미술, 한국미술 사학회, 157, 1983.
- (16) 박도화, 한국 불교 벽화의 연구, 고려시대를 중심으로, 불교미술 6, 동국대학교 박물관, 1981.
- (17) 안휘준, 고려시대 인물화, 고고미술, 180,

1988.

- (18) 안희준, 고려 불화의 회화사적 의의, 고려 영원한 미, 삼성 미술 문화재단, 1993.
- (19) 유마리, 고려 아미타 불화의 연구, 불교미술 6, 동국대학교 박물관, 1981.
- (20) 유마리, 고려시대 오백 나한도의 연구, 한국 불교 미술사론, 민족사, 1987.
- (21) 이동주, 고려 불화중의 인물 화조도, 계간 미술, 18, 1981.
- (22) 이동주, 고려 불화중의 -탱화를 중심으로 -, 고려불화, 중앙일보사.
- (23) 임명미, 고려왕조대 고려와 교류하였던 제국과 고려의 복식제도에 관한 연구.(2-4), 복식, 20. 한국복식학회, 1993. 5.
- (24) 임명미, 고려왕조대 고려와 교류하였던 제국과 고려의 복식제도에 관한 연구.(4-4), 복식, 18. 한국복식학회, 1992. 5.
- (25) 임명자, 고려 불화중의 -탱화에 나타나는 의상문양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 (26) 임천, 수덕사 대웅전의 벽화, 미술자료, 2, 1960.
- (27) 정우택, 고려 불화에 있어서 사상의 전승, 미술사학 연구, 192, 한국미술 사학회, 1991.
- (28) 장경희, 14C, 고려염직 연구, 미술사학 연구, 190, 191, 1991.
- (29) 조호숙, 고려시대, 견직물의 실증적 연구, 복식, 20. 한국복식 학회지, 1993. 5.
- (30) 홍윤식, 고려 불화의 구도상의 특성-조선 불화와의 비교를 통하여-, 문화재 100, 1980.
- (31) 홍윤식, 한국 불화와 일본 불화, 불교학보, 18, 동국대학교 불교 문화연구소, 1981.
- (32) 홍윤식, 조선초 지온원 소장 오백 나한도 와 그 산수화적 요소, 고고미술, 169, 170, 1986.
- (33) 홍윤식, 고려불화의 주제와 그 역사적 의미, 고고미술, 180, 1988.

(34) 홍윤식, 불화와 한국문화, 고려, 영원한 미, 삼성 미술 문화재단, 1993.

- (35) 홍윤식, 고려 불화의 특징과 그 이해를 위하여, 삼성 미술 문화재단, 1993.
- (36) 홍윤식, 불상, 불화의 복장물의 미, 문화재, 19, 문화재 관리국, 1986.

〈국외서적〉

1) 단행본 및 도록집

(1) 중국

- ① 順暉문물 연구소, 順暉막고굴 예술, 삼련서점 향향분점, 1981.
- ② 문물 출판사, 順暉막고굴, I. II. III. IV. V. 문물 출판사.
- ③ 문물 출판사, 안서 유림굴, 북경 문물 출판사, 1983.
- ④ 산서성 고 건축 보존 연구소편, 암산사 금대 벽화, 북경, 문물 출판사, 1983.
- ⑤ 산서성 고 건축 보존 연구소편, 불광사 화대 전원 당, 오대벽화, 북경, 문물 출판사, 1983.
- ⑥ 산서성 고 건축 보존 연구소편, 개화사 송대 벽화, 문물 출판사, 1983.
- ⑦ 양자명의 1인, 직익묘 벽화, 인민 미술 출판사, 1982.
- ⑧ 안춘양의 1인, 신강의 벽화 上·下, 중국외문 출판사, 1981.
- ⑨ 양학조, 順暉 벽화 일본 선집, 상해인민 미술 출판사, 1989.
- ⑩ 주석보, 중국고대 복식 연구, 북경, 중국 회극 출판사, 1984.
- ⑪ China International Book Trading Co. The Yongle Palace Murals, Beijing, 1985.

(2) 일본

1) 단행본 및 도록집

- ① 가동승구, 서역의 미술, 권1,2,3, 동경, 강담사, 소화 59년.
- ② 문물 출판사, 키질석굴 1, 평범사, 1983.
- ③ 문물 출판사, 키질석굴 2, 평범사, 1983.
- ④ 문물 출판사, 키질석굴 3, 평범사, 1983.
- ⑤ 문물 출판사, 맥적산 석굴, 평범사, 1988.
- ⑥ 돈황 연구원, 안서 유람굴, 평범사, 1990.
- ⑦ 소송무미, 화엄종조사 회전, 화엄연기, 일본회전대성 17, 1990.
- ⑧ 문물 보관소, 용문석굴, 제1권, 평범사, 1987.
- ⑨ 용문물 보관소, 용문석굴, 제2권, 평범사, 1987.
- ⑩ 동경 미술학교, 법릉사 대경 권4,8,9, 대종 공예사, 소화 9년.
- ⑪ 조일 신문사, 고려불화, 조일 신문사, 1981.
- ⑫ 신강위구로자치구 문물관리 위원회 문물 출판사, 중국석굴, 평범사, 1987.
- ⑬ 수양청일, 운강석불군, 조일 신문사, 소화 19년.
- ⑭ 하남성 문물 연구소편, 중국석굴, 평범사, 1987.

2) 논문

- ① 석상선웅, 고려 불화와 일본 불화의 비교 연구, 고려 영원한 미, 삼성 미술 문화재단, 1993.
- ② 이동유진, 고려 문화재의 일본전래, 고려 영원한 미, 삼성 미술 문화재단, 1993.
- ③ 하원유옹, 일본에 있는 고려불화의 위치, 고려 영원한 미, 삼성 미술 문화재단, 1993.

2. 사경 및 경판화

가) 단행본 및 도록

- (1) 권희경, 고려 사경의 연구, 미진사, 1986.
- (2) 김원용외, 문화재 대관 8, 한국 문화재 보호

협회, 1986.

- (3) 국립중앙 박물관, 불사리장엄, 국립중앙 박물관, 1991.
- (4) 동국대학교 박물관, 개교 77주년소장품 100선, 동국대학교 박물관, 1983.
- (5) 삼성출판사, 삼성출판사 박물관 개관 기념 도록, 삼성출판사 박물관
- (6) 연세대학교 박물관, 박물관 전시품도록 (I), 연세대학교 박물관.
- (7) 장충식, 고려 화엄경 판화의 세계, 아세아문화사, 1992.
- (8) 문화 공보부, 문화재 관리국, 동산문화재 지정 보고서, 84~85 지정편, 문화공보부, 1989.
- (9) 문화 공보부, 문화재 관리국, 동산문화재 지정 보고서, 88 지정편, 문화공보부, 1989.
- (10) 청주고인쇄 박물관, 한국의 옛 인쇄문화, 대한 출판 문화 협회, 1993.
- (11) 해인사, 불설예수 10왕생 7경, 고려 고종 33(1246)

나) 논문

- (1) 문명대, 묵법연화경 사경 변상도의 한 고찰, 한국 불교학, 3, 1977.
- (2) 박도화, 고려 금은니 사경화의 양식고찰, 고고미술, 18, 1989.
- (3) 박도화, 고려후기 사경 변상도의 양식 변천, 고려, 영원한 미, 삼성 미술 문화재단, 1993.
- (4) 이성미, 고려 초조 대장경의 어제비장전 판화, -고려초기 산수화의 연구-, 고고미술, 169, 170, 1986.
- (5) 장충식, 범화 변상고, 한국 불교학, 3, 1977.
- (6) 장충식, 한국 불교 판화의 연구, 불교학보, 19, 1982.
- (7) 장충식, 한국 사경목록, 불교미술, 7, 동국대학교 박물관,
- (8) 천혜용, 고려시대전적, 고고미술, 184, 한국미술 사학회, 1989.

- (9) 천혜봉, 한국의 고대 판화, 초조어제비 장전
의 목판화, 계간미술, 1977, 여름
- (10) 황수영, 고려 사경의 연구, 고고미술, 157,
한국미술 사학회, 1983.
- (11) 황영주, 고려 감지금니 사경의 신예, 고고
미술, 16, 1961.
- (12) 황영주, 고려국왕 발원의 금은니 사경, 고
고미술, 125, 1975.
- (13) 황영주, 안성 청원사의 고려 사경－고려
국왕 발원은니사경－, 동양학, 5, 1975.

ABSTRACT

A Study on The Costume of The Koryo Dynasty(2)

—See through by the human being, on the Buddist Panting of Koryo Dynasty hang on the wall(2)—1.

It was aimed to study the costume of Koryo dynasty based upon the thirty pictures of Buddha to hang on the wall among the existing Buddist paintings. The costume to study were made about 64 years during the King Chung-yol(1286) to the King Chung-jong (1350) which style was mostly related in Won Dynasty.

↑) Men's wear :

1. Hair style and hair dress :

Man tied up a top knot and they put on the hat such as a Kuan, Kun, and Mo. The young boys binds his hair up one, two, and three knots, and tied up with a hair ribbon. A kinds of Kuan-mo were Mien-lu-kuan, Yuan-yu-kuan, Nong-kuan, Hae-chi-kuan, Pok-du, Yun-wha-kuan, Yip-mo and Tu-ku.(Helmeto

2. Clothes :

1) Colour of Koryo King's

Mien-lu Kuan costume was not agree with blue and reddish black colour which was used in Yo, Song, Kum and Won Dynasty, however black and greenish blue colour was agreed with.

2) The king wore T'ung-t'ien-kuan(Yuan-yu-kuan) and the government officials wore Chin-hien-kuan, Hae-chi-kuan and Nong-kuan as a court dress. In general, the king and the Crown Prince wore a hats which was used in T'ung-t'ien system, however sometimes they wore small hats which was cited in literature.

3) Gate guard and upper garment wore small size sleeve jackets and underwear slacks, boots, mokasin, and carried arms which was agreed with the costume of Song and Won Dynasty. Po-gae, gye-ye, guard wore colourful costume figured gold colour pattern which was distinctive costume system of Koryo.

4) A monk wore big sleeve long skirt, big sleeve long jacket, long skirt and shoulder scarf, full shoulder scarf or right hand shoulder opened scarf.

5) The Soldiers wore helmet, shoulder or scarf, pee-back, hung-kap, pok-kap, yang-dang-g-kap, we-yu-kap, kun-kap, and boots and they carried arms.

6) The young boys wore scarf, loin cloth, long skirt, belt, neckless, wan-sik, boots and foots wear and wristless.

↑) Women's wear :

1. Hair style and hair dress :

1) In general women put up the hairs and tied up with a hair ribbon and wore precious ston decorated hair dress, wheel shape hair

dress, pan shaped head dress, handkerchief covered hair dress, decorated precious stone hair pin, silk chippon made of head dress, muffler shaped hairdress. Boots, mocasin, hae, lee, suk and sandle wored as a shoes depends on the classes. They wore neckless, earing, wressless and wan-pu-sik.

2. Clothes

1) High rank ladie's wore un-kyun attached jacket, and jacket sleeves decorated pleats, and pleats decorated long skirt, apron, back apron, knot belt, scarf, this type is the same with Dang Dynasty, five dynasty of china, Song, Kum, Won, Myung Dynasty, and our costume of Poe-hae, and Shilla Dynasty.